

특류세평 이용숙 정경대 교수·행정학과

(평범한) 일상도시를 꿈꾸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지난 4월 제자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출간했다.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기에 용기를 낸 일이었다. 대중서가 아니어서 기대만큼 폭넓은 독자층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어떤 도시가 살고 싶은 좋은 도시일까?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쓴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지 못했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수려한 도시경관을 지닌 도시를, 다른 이는 공해 없는 건강한 도시를 선호한다. 또 다른 사람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는 성장하는 도시를 꿈꾸며, 또 어떤 사람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도시를 원한다. 이처럼 좋은 도시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 기준들은 상호 충돌하기도 한다. 이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도시는 없기에 좋은 도시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세계도시, 광역거대도시, 뉴어버니즘, 창조도시, 스마트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생태도시, 슬로시티, 포용도시 등 많은 도시론이 등장했다. 그런데 내 눈

에 들어온 것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세계도시, 창조도시, 스마트도시가 아닌 제니퍼 로빈슨의 일상 도시(ordinary cities)였다. 그 이유는 비주류적인 선택을 하는 내 성향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일상에서의 개혁과 일상의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서울의 현재 맥락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일상 도시 논의는 서구의 몇몇 도시의 정책만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경쟁하는 행위를 비판하면서 도시 속에서 평범한 시민의 삶에 집중한다. 일상화된 평범한 사람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도시 삶 속에서 계층적,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세력과 집단이 평화적으로 화합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일상 도시란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든 이의 일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평범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소통과 개방형 시정을 꿈꾸는 도시에서 일상 도시 관점은 중요하다. 일상 도시 관점은 평범한 시민이 도시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만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한마디로 일상 도시는 시민 삶의 주체성 회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지향점이 너무 이상적이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자발적 주체로서 시민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미 체험했다. 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도시에서 코로나 변이가 출현해 또다시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따라서 도시의 미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도시 간 연대는 변수가 아닌 상수이다.

일상 도시 관점을 현실화하는 노력은 도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도시를 특정 성격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도시의 평범함을 인정하는 것이 전환의 첫걸음이다. 특별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도시 일상의 문제를 탐색하고 시민이 중심이 돼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일상 도시의 출발이다. 특정한 성격의 특별한 도시를 지향하면 도시 내 여러 계층과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진다. 공생과 화합의 전제 조건인 다양성을 인정할 때 일상 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을 위해 서구 도시 모방에 의존하는 행태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방에 의존할 때 도시 순위 경쟁에 매몰돼서 시민 일상의 개선 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이 주체로서 도시를 혁신적으로 디자인하고 개혁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행동을 통해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니 서울을, 성북구를, 안양동을 변화시키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길 바란다.

일상 도시 서울을 꿈꿔서 즐거웠고 화제의 책이 되길 고대하면서 공동 집필 과정 내내 행복했다. 출판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실 자각의 시간(현타)을 보내고 있지만, 현타의 공허함보다 깨달음의 기쁨이 더 크다. 화제작을 꿈꾸며 나 역시 평범함보다는 특별함을 추구했었다는 사실, 평범함을 수용하는 데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공저자인 MZ 세대와의 협업과 소통이 큰 즐거움이었던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였다.

‘냉전’(冷箭)은 숨어서 쏘는 화살이란 뜻으로 고대신문 동인이 씀니다. 冷箭

98년도였을 것이다. TV만 많이 보면 PD가 되는 줄 알았던(사실은 PD라는 장래희망을 핑계로 주구장창 TV 앞에 앉아 있던) 무지렁이, 게다가 사춘기에, 2차 성징에, 감수성이 터지다 못해 폭발할 지경이던 그 시절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를 만났다. 당시에는 정극이나 시대극처럼 ‘눈물 콧물 쏟는 치정이 있어야 드라마지’ 하는 시절이었었는데, 갑자기 신데렐라스토리의 조상님 격인 이 드라마를 누군가가 만들어냈거다. 지금에야 뻔한 오프닝에 16회 엔딩까지 다 읊조릴 수 있는 스토리다. 재벌 2세에 반항기 넘치고 사랑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맛있는 이 남자가 우연히 들장미 소녀 캔디 같은 여자를 만나 진짜

유산, 출중한 미모를 가져야 한다는 것. 현실에선 행운 하나 만나기도 힘든데 마법 같은 천운에 유전적 유산까지 더해져야 한다니 불가능이다. 하지만 25년이 흐른 지금, 나는 아직도 신데렐라를 꿈꾸며 살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데렐라를 다른 세상으로 인도해줄 ‘멋진 왕자’가 때로는 직업적 성공으로 치환되기도 하고 ‘영끌’로 올라탄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간혹 ‘로또’가 되기도 한다.

어느 유튜브버가 요즘 2030 세대가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집값은 2억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 이 드라마 덕에 나는 몇 날 며칠 가슴 설레서 잠을 설치고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남주’를 만나기 위해 방송국 앞에 진을 쳤으며, 꼭 PD가 되어 이런 멋진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말겠다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렇다. 이때부터 나의 신데렐라를 ‘대놓고’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나는 이 스토리의 숨겨진 뜻을 알지 못했다.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 첫 번째는 비록 조실부모에 홀대받는 처지지만 이 처지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 호박마차를 태워줄 천운을 타고 나아 한다는 것. 둘째는 왕자를 만났을 때 왕자를 한눈에 반하게 할 유전적

씩 뛰고, 월급으론 그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남들 다하는데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리를 하게 된다. 욕할 일이 아니다.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신데렐라에 대한 잡설을 늘어놓은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들 신데렐라를 꿈꾸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신데렐라를 꿈꿔야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황홀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호박마차를 타고 왕자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해져서, 그런 세상이기엔 나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파이팅 신데렐라!”

(YUL)

카메라사계



설익은 가을의 맛

추석 연휴를 틈타 평소애 가보고 싶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향했다. 커다란 청설모가 나무 위에 앉아 익지도 않은 감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 모습은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긴팔 옷을 꺼내 입고선 손 부채질을 하는 나를 보는 듯했다. 아직 여름이라 외치고 있는 나 못말 사이로 가을이 다가온다.

한다빈 기자 binsoffthewall@



高 FLIX

高FLIX는 고대인이 애정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푸른 청춘으로 빛날 이들의 영화



〈썸머 필름을 타고!〉

별점: ★★★★★

한 줄 평: 영화에 의한, 영화 같은 청춘을 푸루하게 담아내다

〈썸머 필름을 타고!〉는 사무라이 영화광인 고등학생 ‘맨발’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미래에서 온 ‘린타로’의 사무라이 영화 제작기를 그린 다. 야심차게 기획한 〈무사의 청춘〉이 영화 동아리 시나리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후, 맨발은 친구 ‘블루하와이’와 ‘킵보드’와 함께 직접 영화를 찍겠다고 결심한다. 조명, 음향 등 나름의 구색을 갖췄지만, 청춘 사무라이 영화에 딱 맞는 주인공을 찾는 건 쉽지 않다. 어느 날 맨

발은 사무라이 영화제가 열린 작은 영화관에서 운명처럼 린타로를 마주한다. 린타로는 영화 출연 제안을 필사적으로 거절하지만, 맨발의 불같은 열정에 못 이겨 어느덧 그들의 여정에 합류하고, 그렇게 맨발의 작은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무언가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꼭 빠져있는 사람의 눈빛을 보는 것만큼 벅찬 게 없다. 사무라이 영화를 화면 뚫어지게 감상하고, 열렁뚱땅 영화를 만들어가는 맨발과 친구들의 눈빛은 러닝타임 내내 빛났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에서 나오는 순수한 힘은 마음을 계속해서 툭툭 건드렸다.

영화는 린타로라는 인물을 통해 영화 그 자체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한다. 린타로가 사는 미래의 세계엔 영화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 영화가 사라진 세상은 극단적인 실정인 듯하면서도 그럴듯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영상은 계속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린타로

가 사는 세계처럼, 계속 확장되고 있는 우리의 극장도 언젠가 추억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한편 린타로가 미래엔 영화가 없다고 말할 때, 맨발은 린타로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보다 영화가 사라지는 미래에 더 충격받고 상심한다. 의지가 꺾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맨발은 멈추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영화의 힘을 믿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냥 사무라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는 맨발과 친구들의 청춘이 얼마나 싱그러운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경쾌한 음악, 푸른 색감, 순수한 친구들, 경쟁자와의 화합, 굴곡 없는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서 말이다. 청춘은 수많은 색깔을 지니지만, 영화는 그중에서도 여름의 푸른 청춘이 주는 마력을 비추며 어김없이 그것에 끌리게 만든다.

“이번 여름엔 너희들의 청춘을 내가 좀 줄게!” 영화를 매개로 펼쳐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간 여름의 싱그러움을 음미해 보자. 이주는(미디어20)

LATTE고신

Latte 고신은 과거 요맘때,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1947년 11월 3일

2009년 9월 21일
1623호

2022년 9월 19일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수강신청 불협화음

2009학년도 2학기 최종 수강신청 기간에 건축사회환경공학부(학부장=윤영수) 측과 학생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혼란은 학생들이 학부사무실에 서 출수학번과 짝수학번으로 편성해 둔 분반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시작했다. 일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으로 반을 신청해 특정 수업에 학생들이 몰렸고, 학부사무실 측은 수업환경을 위해 개강 이후 마지막 일정 기간에 학생들의 반을 임의로 옮겼다. 문제가 된 것은 학부사무실이 반을 옮긴 것을 공지한 시점이다. 학부사무실은 5월 조기수강신청 이후부터 8월 말 일정기간까지 아무런 대체를 하지 않다가 9월 최

종 일정기간인 3일(목)에야 반을 변경했다. 학생들은 대체과목을 찾거나 시간표를 조정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 모(공과대 건축사회환경공학04) 씨는 “학부사무실 공지를 보고 다른 전공수업을 급하게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영수 건축사회환경공학부장은 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개강 후 교수회의에서 전체 개설교과목을 재검토하다 뒤늦게 변경을 결정해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일부 수업은 갑자기 폐강되거나 수강 대상 학년이 아니란 이유로 수강신청이 취소되기도 했다. 교

과목은 수업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폐강이 결정됐다.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부사무실 측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 △건축공학전공이 통합되는 과도기라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예전에 전기전자전파공학부가 통합·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수업과 학적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진창현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생회장은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며 “학부장님이 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된 기자 mini@

#수강신청 #늦은 공지에_혼선 #공지는_미리미리

최민서 기자 frog@